

대학생의 안보건 정보경로와 실천률

이옥진 · 신진아*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여주대학 안경광학과
투고일(2008년 5월 3일), 수정일(200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2008년 6월 10일)

목적: 대학생의 안보건 정보습득경로와 실천률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대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대학생들은 안보건 정보를 안경원(45.21%), 마스크(27.74%), 안과(14.38%)에서 주로 얻었다. 이들 경로의 정보 만족률은 높았으며 특히, 안경원에서의 만족률(85.60%)이 매우 높았다. 시력을 교정한 대학생의 안보건 정보습득 경로는 안경원에서가 55.50%로 가장 많았고 시력교정을 하지 않는 대학생의 안보건 정보습득 경로는 마스크(43.56%)를 통해서가 가장 많았다. 정보에 대한 실천률은 70.21%로 높았고 안경원에서 정보를 습득한 대학생의 실천률이 76.52%로 매우 높았다. **결론:** 대학생들은 안보건 정보를 안경원에서 가장 많이 습득하며 타 경로에 비해 만족률과 실천률이 높았다.

주제어: 대학생, 안보건 정보경로, 만족률, 실천률, 안경원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해당되며 대학생 시기의 생활양식과 건강행태가 그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년기 이후 건강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 따라서 이 시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습득과 행위의 실천은 다른 시기보다도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의 중압감 속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건강상태가 불안정하고 건강신념과 건강행위도 적절히 확립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건강교육이 요구되나 아직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현실이다³.

이러한 실정은 안보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초·중·고 학생신체검사에 따르면 42.19%의 학생들이 시력에 문제(단안시력 0.6이하)가 있고 해마다 시력저하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⁴ 시력저하 등을 포함한 안보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지역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95.72%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대학생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안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안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86.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⁵. 또한 안보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력검진 실태에 관한 연구

에서는 대학생의 59.21%가 정기적인 시력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⁶ 안보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거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소득의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포괄적인 건강정보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책자, 마스크,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서 앞 다투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7,8} 이들 매체 등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보건교육의 부재상태에서 대학생들이 안보건 정보를 얻는 경로와 그 내용, 만족률, 실천률을 파악하여 안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안보건 정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9월 현재 경기도 소재 2~3년제 보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안경광학과 재학생 제외) 300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92부를 SAS 8.1(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X²-검정을 이용하여 각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신저자 연락처: 이옥진, 440-7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지동 937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TEL: 031-249-6512, FAX: 031-249-6510, E-mail: leeoj@dongnam.ac.kr

*본 논문은 동남보건대학 2007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된 연구가 없는 관계로 연구자들이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성별, 시력교정여부, 안보건 정보습득의 주된 경로, 습득한 정보의 내용, 습득한 정보의 만족정도, 습득한 안보건 정보의 실천정도에 관한 총 6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총 292명의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42.47%, 여학생은 57.53%였다. 시력교정여부에 관해서는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교정한 시력교정자가 65.41%이고 비교정자가 34.59%로 교정자가 더 많았다(Table 1).

2. 안보건 정보경로와 만족률

대학생들의 안보건 정보경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경원에서 얻는다는 경우가 45.21%(132명)로 가장 많았고, 신문, 잡지, TV와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가 27.74%(81명), 안과에서 얻는다가 14.38%(42명), 인터넷을 통해서가 9.59%(28명), 서적을 통해서가 2.74%(8명), 가정에서 얻는다는 경우가 0.34%(1명) 순이었다.

안보건 정보경로에 관해서는 선행된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반 정보와 보건 의료 정보 습득에 관한 연구에서⁹ 국민들은 일반 정보를 주로 방송(TV, 라디오), 신문을 통하여 얻으며 그 다음이 PC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2)

Character	Division	Frequency(%)
Sex	male	124(42.47%)
	female	168(57.53%)
Correction of visual acuity	yes	191(65.41%)
	no	101(34.59%)

Table 2. Rout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n: 292)

Rout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Frequency (%)	Satisfaction in information (%)
Optician's shop	132(45.21%)	113(85.60%)
Mass communication	81(27.74%)	53(65.43%)
Ophthalmic clinic	42(14.38%)	30(71.43%)
Internet	28(9.59%)	23(82.14%)
Books	8(2.74%)	5(62.50%)
Home	1(0.34%)	1(100%)

신 및 인터넷, 가정, 서적, 이웃, 공공기관의 순이라고 하였다. 보건의료정보는 66.7%가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하였고 대학생의 연령이 포함되는 20대의 결과도 같았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치하였으나 경로에 관해서는 완전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안보건의 특성상 일반 보건의료정보와는 다르게 안경원과 안과 등의 전문 안보건 정보제공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되는데, 안경원에서의 정보 습득이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습득보다 높게 나타난 점과 전문 안보건 정보제공처 중에서 안과보다도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만한 결과로서 대학생들은 시력교정 등을 이유로 안경원을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안보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경원과 함께 전문 안보건 정보제공처에 포함되는 안과에서의 습득이 안경원, 매스컴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안과는 질환이나 특정필요성에 의해서만 방문하는 곳으로 인식하여 안과를 통한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들의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른 만족률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의 만족률은 100%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이 1명이므로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제외하기로 한다. 안경원에서 습득한 정보의 만족률이 85.6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정보의 만족률이 82.14%, 안과에서 얻는 정보가 71.43%, 매스컴의 정보가 65.43%, 서적의 정보가 62.50%의 만족률을 보여주었다(Table 2).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안경원을 통해서 안보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습득한 정보에 대한 만족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과의 만족률을 앞선 것으로 안경원에서는 대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등의 연구에서⁸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보의 만족도는 18.4%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일반 건강관련 정보와 안보건 정보의 차이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등의 연구는 보건관련학과 대학생이 대상이며 이들의 건강관련 인터넷 접속 동기가 주로 과제물제출과 지식습득을 위해서라는 점에서, 인터넷상의 정보가 이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른 정보내용

대학생들의 안보건 정보경로 중에서 5% 미만인 경우는 해당 학생 수가 적어서 습득한 정보내용을 언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5% 이상으로 나타난 안경원과 매스컴, 안과, 인터넷의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Table 3. Contents of information on eye-health (n=255)

Contents	Optician's shop	Mass communication	Ophthalmic clinic	Internet
Care of visual acuity	46.21%	14.81%	45.24%	7.14%
Ophthalmic diseases	8.33%	27.16%	26.19%	21.43%
The use of glasses	37.88%	9.88%	14.29%	21.43%
General care of eye-health	7.58%	45.68%	11.90%	39.29%
Structure and function of eye	0%	2.47%	2.38%	10.71%
Ttal	100%	100%	100%	100%

(Table 3) 정보경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 안경원

안경원이 주경로인 경우는 '시력관리'가 주 내용이라는 응답이 46.21%로 가장 많았고 '안경사용 및 관리법'이 37.88%, '눈의 질환'에 관한 내용이 8.33%,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가 7.58%, '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내용은 0%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시력관리'과 '안경사용 및 관리법'에 관한 정보가 안경원을 통한 정보의 84.09%에 달하는 것은 렌즈를 통한 시력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안경원의 업무와 기능을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안경원에서는 안경원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이므로 정보의 전달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2) 매스컴

매스컴이 주경로인 경우는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45.68%, '눈의 질환'에 관한 정보가 27.16%, '시력관리'가 14.81%, '안경사용 및 관리법'이 9.88%, '눈의 구조와 기능'이 2.47%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컴의 특성상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주로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안과

안과가 주경로인 경우는 '시력관리'에 관한 내용이 45.24%로 가장 많았고 '눈의 질환'에 관한 정보가 26.19%, '안경사용 및 관리법'이 14.29%,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11.90%, '눈의 구조와 기능'이 2.38%로 나타났다.

안과에서의 정보내용 중 '시력관리'의 내용은 안경원과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눈의 질환'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는 안과에서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나 일부의 대학생들은 전문적인 안과의 방문보다는 매스컴, 또는 인터넷경로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4) 인터넷

인터넷이 주경로인 경우는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39.29%로 가장 많았고 '눈의 질환'에 관한 내용과 '안경사용 및 관리법'이 각각 21.43%, '눈의 구조와 기능'이 10.71%, '시력관리'에 관한 내용이 7.14%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의 정보내용은 매스컴과 유사하게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 '눈의 질환'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나 '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내용은 타 경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시력교정 여부에 따른 안보건 정보경로

현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교정한 대학생과 교정하지 않은 대학생간의 안보건 정보경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력을 교정한 대학생의 정보경로는 안경원에서가 5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스컴(19.37%), 안과(14.14%), 인터넷(7.33%), 서적(3.14%), 가정(0.5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력교정을 하지 않는 대학생의 안보건 정보경로는 매스컴(43.56%)을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경원(25.74%), 안과(14.85%), 인터넷(13.86%), 서적(1.98%), 가정(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교정하고 있는 대학생은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원을 방문했을 때 안보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안경원 방문이 상

Table 4. Route of information according to correction of visual acuity (n: 292)

Rout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Correction of visual acuity	
	Yes	No
Optician's shop	55.50%	25.74%
Mass communication	19.37%	43.56%
Ophthalmic clinic	14.14%	14.85%
Internet	7.33%	13.86%
Books	3.14%	1.98%
Home	0.52%	0%
Total	100%	100%

대적으로 적은 시력을 교정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스컴으로부터의 정보습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른 안보건 실천률

대학생들이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라 얻은 정보를 인지하고 실생활에 이용 또는 실천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총 292명의 대학생 중 70.21%가 실천한다고 답하였으며 29.79%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실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 나타난 것처럼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라서는 안경원에서 정보를 습득한 대학생은 실천했다는 경우가 76.52%, 비실천의 경우가 23.48%로 실천률이 비실천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스컴을 주경로로 하는 대학생은 실천했다는 경우가 69.14%, 비실천의 경우가 30.86%로 역시 실천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과를 주경로로 하는 대학생은 실천했다는 경우가 59.52%, 비실천의 경우가 40.48%로 실천과 비실천의 차이의 폭이 타 경로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었다. 인터넷이 주경로인 경우는 실천이 60.71%, 비실천이 39.29%로 실천률이 높았고 서적이 주경로인 경우는 62.50%와 37.50%로 역시 실천률이 높은 편이었다. 가정을 주경로로 하는 경우에는 100%의 실천을 보이고 있으나 대상 학생이 1명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안경원이 주경로인 경우에 실천률이 높은 것은 ‘시력관리’와 ‘안경사용 및 관리법’과 같은 주 내용이 실천 가능

하고 구체적이며 필요한 정보이기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안보건 정보를 안경원에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경원의 안보건 정보의 만족률과 실천률이 타 경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시력을 교정하고 있는 대학생과 시력을 교정하지 않는 대학생의 안보건 정보경로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기관에서의 안보건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세 부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생들의 안보건 정보경로의 파악과 실천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비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지식의 전파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¹⁰ 보건의료정보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우려할만한 것이므로⁹ 안보건 정보경로의 정확한 안보건 정보의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안경원을 비롯한 안보건 정보의 제공처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건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안보건 정보의 경로와 만족률, 정보내용, 정보에 대한 실천률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안보건 정보경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경원에서 얻는다는 경우가 45.21%로 가장 많았고, 매스컴, 안과, 인터넷, 서적, 가정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른 만족률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경원에서 습득한 정보의 만족률이 85.60%로 가장 높았다.

정보경로에 따른 정보내용은 안경원이 주경로인 경우에 ‘시력관리’와 ‘안경사용 및 관리법’이 주 내용이었고 매스컴이 주경로인 경우는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눈의 질환’이 주 내용이었다. 안과가 주경로인 경우는 ‘시력관리’와 ‘눈의 질환’이 주 내용이었고 인터넷이 주경로인 경우는 ‘눈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눈의 질환’, ‘안경사용 및 관리법’이 주 내용으로 차이가 있었다.

시력교정 여부에 따른 안보건 정보경로는 시력을 교정한 대학생에서 안경원(5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력교정을 하지 않는 대학생에서는 매스컴(43.56%)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Table 5. Practical rate according to rout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n: 292)

Rout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Practic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Total
	Yes	No	
Optician's shop	101 (76.52%)	31 (23.48%)	132 (100%)
Mass communication	56 (69.14%)	25 (30.86%)	81 (100%)
Ophthalmic clinic	25 (59.52%)	17 (40.48%)	42 (100%)
Internet	17(60.71%)	11 (39.29%)	28 (100%)
Books	5 (62.50%)	3 (37.50%)	8 (100%)
Home	1 (100%)	0 (0%)	1 (100%)
Total	205 (70.21%)	87 (29.79%)	292 (100%)

았다.

안보건 정보경로에 따른 안보건 실천률은 총 292명의 대학생 중 70.21%에서 높은 실천률을 보여주었으며 경로별로는 안경원에서 정보를 습득한 대학생의 실천률이 76.52%로 비실천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참고문헌

- 이원재, 반덕진, “일부 대학생들의 건강관련행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2):157-171(1999).
- 김보경, 정문숙, 한창현,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와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1):59-85(2002).
- 이병숙, 김미영, 김미현, 김선경,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건강신념 및 건강행위 실천도”, 대한간호학회지, 30(1):213-224(2000).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학생건강검사표본 분석발표-2007년 9월 20일 보도자료”, http://www.mest.go.kr/ms_kor/news/notice/broadcast/_iceFiles/afieldfile/2008/05/20/200710010239374917.hwp(2006).
- 이옥진, 김혜금, “대학생의 안보건교육 요구도”, 한국안광학회지, 12(3):49-53(2007).
- 이옥진, “대학생의 정기적 시력검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안광학회지, 12(3):117-120 (2007).
- 정영철, “인터넷 건강정보 자율규제방안”, 제17차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108-109(2001).
- 박규량, 박재용, 한창현,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 정보활용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1):85-102(2004).
- 김미선,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보건의료정보의 현황과 올바른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27:429-444(2002).
- 이진학, 이재선, “일반인의 안과상식에 대한 조사-제1보: 중고대학생의 근시 및 색각이상에 대한 상식”, 대한안과학회지, 28(2):231-237(1987).

Route of the Information and the Practical Rate on Eye-Health for College Students

Ok-Jin Lee and Jin-Ah Shin*

Department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 Dongnam Health College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Received May 3, 2008: Revised May 23, 2008: Accepted June 10, 2008)

Purpose: To study the rout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and the practical rate for college students. **Methods:** 292 college students' data were examined by SAS of questionnaire. **Results:** College students mainly gained the information on eye-health from the optician's shop (45.21%), mass communication (27.74%), and ophthalmic clinic (14.38%). The rate of satisfaction of informations from those routes was high. Especially, the satisfaction of the information from the optician's shop was very high (85.60%). Visual acuity corrected students mainly gained the information from the optician's shop (55.50%), and non-corrected students gained mainly from mass communication (43.56%). The practical rate of the information was high (70.21%). The practical rate of the information gained from the optician's shop was very high (76.52%). **Conclusions:** Many College students gained the information on eye-health from the optician's shop. The rate of satisfaction and the practical rate in optician's shop was higher than the other routes.

Key words: college student, route of information on eye-health, rate of satisfaction, practical rate, optician's shop